다함께 성경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20 Y aconteció que oyendo todo Israel que Jeroboam había vuelto, enviaron a llamarle a la congregación, y le hicieron rey sobre todo Israel, sin quedar tribu alguna que siguiese la casa de David, sino sólo la tribu de Judá.

다함께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공과는 제 54과 나누어진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공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구요.

두 번째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여기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 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다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7 Porque ¿quién te distingue? ¿o qué tienes que no hayas recibido? Y si lo recibiste, ¿por qué te glorías como si no lo hubieras recibido?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별시켰느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과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부와 명예, 권력이 가장 극에 달하고 또 그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 그 분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갖기를 원하죠.

그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라고 하면서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1 Y le dijo Dios: Porque has demandado esto, y no pediste para ti muchos días, ni pediste para ti riquezas, ni pediste la vida de tus enemigos, sino que demandaste para ti inteligencia para oír juicio,
12 he aquí lo he hecho conforme a tus palabras; he aquí que te he dado corazón sabio y entendido, tanto que no ha habido antes de ti otro como tú, ni después de ti se levantará otro como tú.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구함을 믿고 그것이 주의 마음에 참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허락해주겠다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고 13절. 13절 보면

13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3 Y aun también te he dado las cosas que no pediste, riquezas y gloria, de tal manera que entre los reyes ninguno haya como tú en todos tus días.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라고 더불어 말씀

하십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하고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허락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에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13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4 Y si anduvieres en mis caminos, guardando mis estatutos y mis mandamientos, como anduvo David tu padre, yo alargaré tus días.

그것은 어디 안에서 허락된 내용이었냐면 바로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네 길로 행하며. 즉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다 하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솔로몬은 참으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재물들 또는 지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위치들이 허락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될 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허락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다함께 읽겠습니다.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7 Cuando los caminos del hombre son agradables a Jehová, Aun a sus enemigos hace estar en paz con él.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Cuando los caminos del hombre son agradables a Jehová, Aun a sus enemigos hace estar en paz con él.

솔로몬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이웃나라들과 아주 우호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솔로몬이 어떤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부한 상태 아니면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말년에 자기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특별히 그는. 특별히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던가 아니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징계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왕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신앙, 자기 혼자만의 실패,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 곧 모든 백성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공은 모든 백성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1 Recorred las calles de Jerusalén, y mirad ahora, e informaos; buscad en sus plazas a ver si halláis hombre, si hay alguno que haga justicia, que busque verdad; y yo la perdonaré.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에요. 예루살렘.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능력있고 지혜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부, 많은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볼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요. 남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또 남들만큼 어떤 리더쉽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작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쯤은 잘못되도 괜찮겠지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있는 위치라는 거에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까지도 잘못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맡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홀히 여기는 그것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모든 것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것이라 하셨음이며
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것이니라

16 Pero él no aumentará para sí caballos, ni hará volver al pueblo a Egipto con el fin de aumentar caballos; porque Jehová os ha dicho: No volváis nunca por este camino.
17 Ni tomará para sí muchas mujeres, para que su corazón no se desvíe; ni plata ni oro amontonará para sí en abundancia.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된 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9 y lo tendrá consigo, y leerá en él todos los días de su vida, para que aprenda a temer a Jehová su Dios, para guardar todas las palabras de esta ley y estos estatutos, para ponerlos por obra;

라고 이미 경고해두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경고해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읽었음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에요.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평화가 오래가자 그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일종의 연혼정책을 취했어요. 연혼정책.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로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 안 되자나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그 쪽 왕의 딸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정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어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얻게 된 왕비가 모두 몇 명이냐. 첩까지 하면 천 명이라는 거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이 말씀과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거에요.

뿐만 아니고 실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라고 그랬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성도 두고 말도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솔로몬이 그러한 정책을 취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계획대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는 훗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들이 빨리 들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죄가 천천히 들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에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4절.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24 Los pecados de algunos hombres se hacen patentes antes que ellos vengan a juicio, mas a otros se les descubren después.
25 Asimismo se hacen manifiestas las buenas obras; y las que son de otra manera, no pueden permanecer ocultas.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라고.

어떤 것은 빨리 드러나고 그래서 빨리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천천히 드러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반드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난다 라는 거에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여자조심. 그런데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그 신세를 망치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찾아볼까요? 잠언 3장. 잠언 2장 16절. 잠언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6 Serás librado de la mujer extraña, De la ajena que halaga con sus palabras,

그러면 17절,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7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17 La cual abandona al compañero de su juventud, Y se olvida del pacto de su Dios.
18 Por lo cual su casa está inclinada a la muerte, Y sus veredas hacia los muertos;

여기는 벌써 그 결과까지도 말하고 있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게로 빠져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진다.

지혜롭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그는 자기가 이야기 했던 대로 빠져버린 거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 말이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죄인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 결과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학생 때 티비 많이보면 공부못한다고 알고 있자나요.

그런데 티비 많이 봤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 열심히 않하죠? 참 희한해요.

솔로몬은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정작 그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버린 거에요.

솔로몬은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평가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왕으로 또한 기억이 되기도 하는 거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11장 보기 전에 10장 8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자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 Bienaventurados tus hombres, dichosos estos tus siervos, que están continuamente delante de ti, y oyen tu sabiduría.
이게 시바여왕이 했던 내용입니다. 스바여왕이, 스바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고 감탄을 해 가지고 그 밑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11장으로 넘어가니깐 11장 1절. 1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솔로몬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1 Pero el rey Salomón amó, además de la hija de Faraón, a muchas mujeres extranjeras; a las de Moab, a las de Amón, a las de Edom, a las de Sidón, y a las heteas;
2 gentes de las cuales Jehová había dicho a los hijos de Israel: No os llegaréis a ellas, ni ellas se llegarán a vosotros; porque ciertamente harán inclinar vuestros corazones tras sus dioses. A éstas, pues, se juntó Salomón con amor.

물론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이방여인을 사랑하면, 이방여인을 연애하면 결국 그들의 행위까지도 본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자 이방 여인을 데려왔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방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에요.

그 3절에 보니깐

3 왕은 후비가 칠백인이요 빈장이 삼백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

더라

3 Y tuvo setecientas mujeres reinas y trescientas concubinas; y sus mujeres desviaron su corazón.

1000명이나 되는 왕비들이요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돌이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큰 결과로 들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여인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과 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그마하게 시작된 바로 그 죄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나아가게 된거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발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발전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치르고자 했던 댓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댓가를 치르게 만들고 훨씬 더 멀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에요.

죄라는 것은요. 작은 죄부터 잡아야 됩니다. 작은 죄.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그마한 말씀. 그가 결코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바로 그 말씀을 어김에서부터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거죠. 스바여왕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 지혜가 그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지 못한 거에요.

결국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1 He aquí que no se ha acortado la mano de Jehová para salvar, ni se ha agravado su oído para oír;
2 pero vuestras iniquidades han hecho división entre vosotros y vuestro Dios, y vuestros pecados han hecho ocultar de vosotros su rostro para no oír.
3 Porque vuestras manos están contaminadas de sangre, y vuestros dedos de iniquidad; vuestros labios pronuncian mentira, habla maldad vuestra lengua.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부터 짓게 되는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서두르지 않아요. 마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르 찾는다고 말하고 있자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마귀가 결코 얼씬도 못하네.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자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됐다 싶으면 조심해야 되요.

바로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거할 때 마귀는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방여인들을 취했을 때조차도 솔로몬은 그것을 능히 이겨낸 것처럼 보였던 거에요.

그런데 마귀는 서두르지 않은 거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강점, 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물들어갈 때 지혜와 총명은 점점점점 어두어져 버리거든요. 에베소 4장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자나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어집

니다.

바로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잠시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 Y cuando el diablo hubo acabado toda tentación, se apartó de él por un tiempo.

얼마동안 떠나는 거에요. 잠시동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우리가 이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면 안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막아야 되요.

시편 44편. 시편 44편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3 Porque no se apoderaron de la tierra por su espada, Ni su brazo los libró; Sino tu diestra, y tu brazo, y la luz de tu rostro, Porque te complaciste en ellos.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게 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게 되고 그 경고조차 듣지 않게 되는 거에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4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13 antes exhortaos los unos a los otros cada día, entre tanto que se dice: Hoy; para que ninguno de vosotros se endurezca por el engaño del pecado.
14 Porque somos hechos participantes de Cristo, con tal que retengamos firme hasta el fin nuestra confianza del principio,

우리가 참으로 중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려면

데마와 같이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붙들어주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바로 그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정말 주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요.

솔로몬의 바로 그러한 면에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범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당대 가장 지혜롭고 당대 가장 부하고 당대 모든 평화를 누렸던 그 왕.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대적자로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3절. 23절 시작해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23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3 Dios también levantó por adversario contra Salomón a Rezón hijo de Eliada, el cual había huido de su amo Hadad-ezer, rey de Soba.

잠잠하던 이스라엘 왕국에 대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25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의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25 Y fue adversario de Israel todos los días de Salomón; y fue otro mal con el de Hadad, porque aborreció a Israel, y reinó sobre Siria.

그 외에 또 다른 대적자가 일어나죠. 거기다가 솔로몬의 심복이었던 여로보암까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죠.

결국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바로 그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도 바래서 연혼정책을 취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그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에요.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가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깨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이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 No os engañéis; Dios no puede ser burlado: pues todo lo que el hombre sembrare, eso también segará.
8 Porque el que siembra para su carne, de la carne segará corrupción; mas el que siembra para el Espíritu, del Espíritu segará vida eterna.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비록 솔로몬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심판은 내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진다고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한 그 언약을 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댓가는 치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살아 생전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25 Mas el que hace injusticia, recibirá la injusticia que hiciere, porque no hay acepción de personas.

하나님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댓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평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십니다. 범죄는 댓가가 따르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떤 형벌의 의미보다는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징계의 의미가 큰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돌아오게 하고자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

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억하십시오.

대적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거.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 잠자고 아침에 눈뜨는 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다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다, 또는 무의식 중에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것이 자리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키우죠.